

## 중국의 해외투자 증가 배경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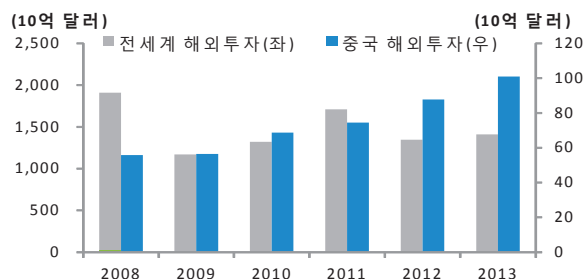
금융연구실 김진 연구원 jinini@woorifg.com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차이나머니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중국 정부가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은행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며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한 실물부문의 해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QDII 완화 등 민간이 해외직접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해외간접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투자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차이나머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투자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최근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증가하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그동안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국(inflow)으로서 주목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해외투자(outflow) 규모가 급증하는 등 차이나머니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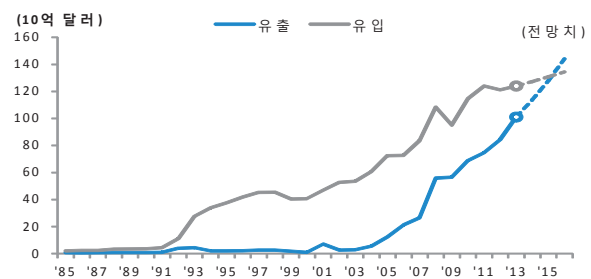
- 전 세계 해외투자는 2011년 1.7조 달러(FDI Outflow 기준)를 기록한 이후 크게 감소하여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3년 전 세계 해외투자 규모는 1.4조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반면 중국은 1,0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15.0% 증가
-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와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고, 수년 내 유출 규모가 유입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 해외투자 유출입 규모의 격차는 2000년 4.0억 달러에서 2013년 2.3억 달러로 축소
  - UN은 2014년 6월 세계 투자 보고서에서 2~3년 이내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규모가 유입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

해외투자 규모 추이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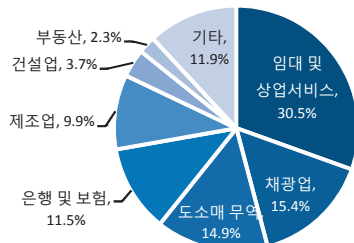
주: 전망은 2008~2013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자료: UNCTAD,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최근의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매우 높아진 것이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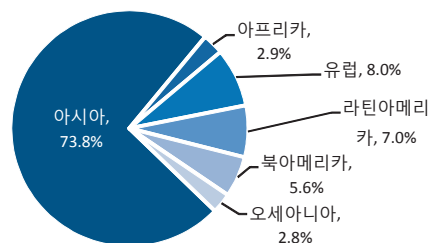
- 과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임대·상업 서비스와 채광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
  - 2003~2009년 누적기준 OECD회원국 중 25개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18.6%인 반면 중국은 5.9%로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반면 2010년부터 중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확대되며 2012년에는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로 증가
- 2012년 아시아 이외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61.4억 달러 감소한 반면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192.9억 달러 증가하는 등 중국의 해외투자가 아시아에 집중
  -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3~2009년 누적기준 66.2%에서 2012년 73.8%로 증가한 반면 라틴아메리카 지역 비중은 19.0%에서 7.0%로 감소
  - 아시아 중에서도 홍콩에 대한 투자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짐

2012년 업종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자료: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2년 지역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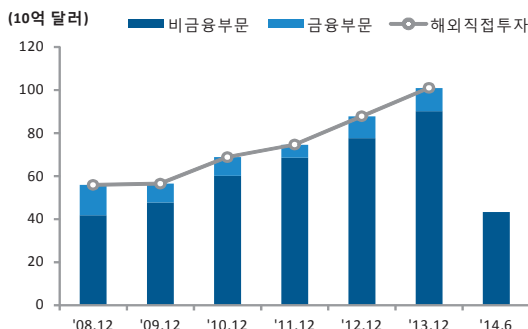
자료: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은행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며 해외투자가 더욱 확대

- 중국 정부는 2002년 처음으로 저우추취(走出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투자 환경을 조성
-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중 559.1억 달러에서 2013년 중 1,010억 달러로 80.6% 증가
- 중국 비금융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중 90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1~6월 동안 433.4억 달러
-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은행업의 해외 진출도 동반
  - 해외직접투자 중 금융부문 투자는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금융부문의 비중은 2011년 8.1%에서 2013년 10.7%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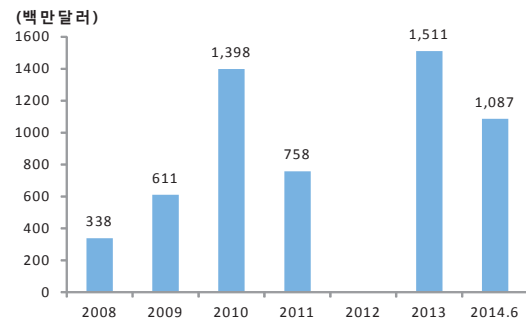
- 최근에는 중국은행들의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은행업의 해외투자가 가속화
  - The Banker의 2014년 Tier 1 자본 기준 은행 순위에 의하면, 중국의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은행 중 4개가 중국계 은행
  - 중국은행들은 2013년 15.1억 달러 규모의 해외 M&A를 추진하였고, 2014년 2분기 누적 기준 10.9억 달러의 해외 M&A를 추진하며 해외 진출을 확대
  - 국제금융협회(IIF)는 중국계 은행의 해외 대출 규모가 2013년에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자료: CEIC

중국 은행의 해외 M&amp;A 규모 추이



자료: Thomson one

## ■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국부펀드 등 국가기관의 투자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개혁 추진으로 민간의 해외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물부문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해외간접투자도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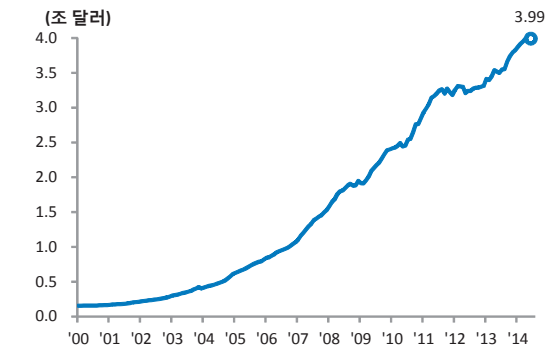
- 중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3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하여 투자의 다변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2014년 6월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대 규모인 3.99조 달러
  - 중국 외환보유액을 직접 운용하는 국가기관은 중국투자공사(CIC), 중국외환관리국(SAFE) 등으로 전 세계 국부펀드 순위에서 4, 5위를 차지
    - \* 총자산: 중국투자공사 5,752억 달러, 중국외환관리국 5,679억 달러
-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 제도가 도입된 2004년 말 대비 2014년 6월 누적 승인규모가 7.6배 확대된 804.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민간 자금의 해외투자 규제가 완화
  -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는 은행, 증권 등 중국 금융기관이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 제도
  -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금융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QDII 취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

전 세계 상위 5위 국부펀드

국가	국부펀드 이름	자산 (억달러)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	8,780
U A 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730
사 우 디	SAMA Foreign Holdings	7,376
중 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5,752
중 국	SAFE Investment Company	5,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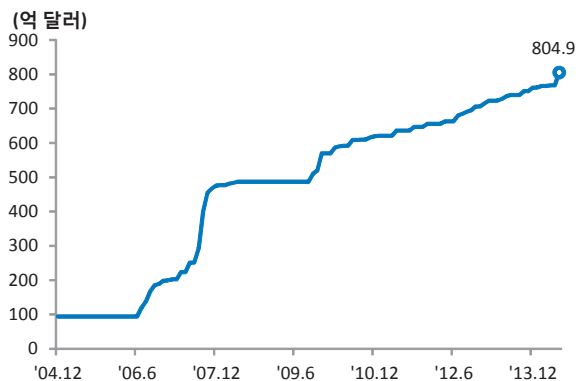
자료: swfinstitute.org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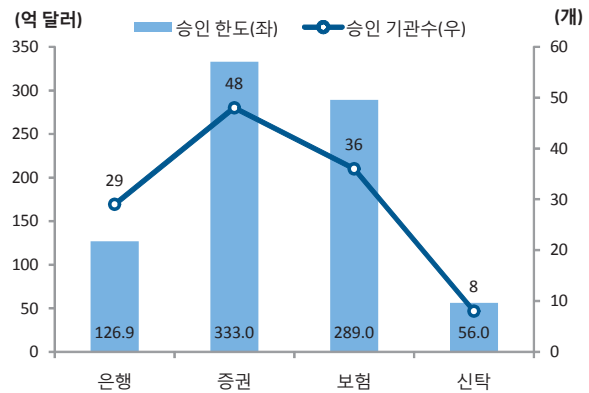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QDII 승인한도 추이



자료: CEIC

기관별 QDII 취득 기관수 및 승인규모



자료: CEIC

## ■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외시장 진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

- Fortune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계 기업은 2010년 46개에서 2014년 95개로 2배 이상 증가
- 2014년 The Banker 선정 글로벌 1000대 은행 순위에 따르면 이 중 중국계 은행은 110개가 포함되었고, 상위 10위 은행 중 1, 2위를 포함해 총 4개가 중국계 은행
  - 중국계 은행은 1000대 은행의 전체 수익 중 32%를 차지하는 등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수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해외투자의 목적으로 “해외 산업 및 시장 확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과거에 비해 기업 브랜드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 중국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적격국내개인투자자제도(QDII2)’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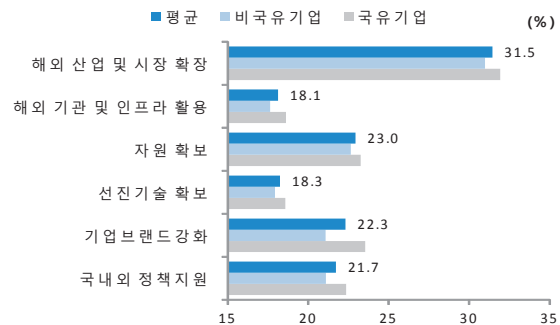
## 글로벌 1000대 은행 중 상위 10위

(억달러)

순위	전년순위	은행명	국가	Tier 1 자본
1	1	중국공상은행	중국	2076.1
2	5	중국건설은행	중국	1739.9
3	2	JP모건체이스	미국	1656.6
4	3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1614.6
5	4	HSBC홀딩스	영국	1581.6
6	6	씨티그룹	미국	1498.0
7	9	중국은행	중국	1497.3
8	8	웰스파고	미국	1407.4
9	10	중국농업은행	중국	1374.1
10	7	미쓰비시UFJ	일본	1172.1

자료: The Banker 2014

##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목적과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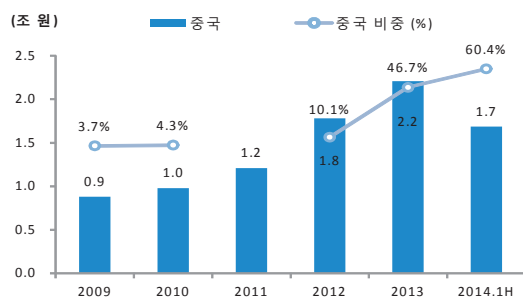
주: 복수응답

자료: 2013年度中国企业对外投资情况及意向问卷调查报告, CCPIT

## ■ 한편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차이나머니의 對한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차이나머니의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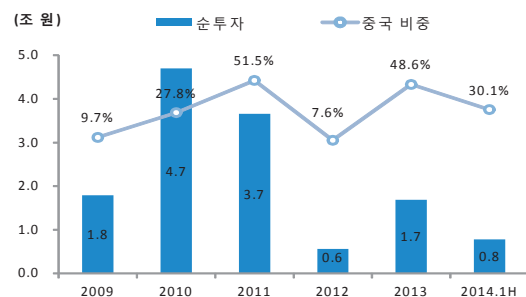
- 특히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유입된 중국계 자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차이나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중국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5.8% 확대
  - 2014년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의 순매수 규모는 1조 6,860억 원으로 2013년 연간 순유입 규모(2조 2,080억 원)의 76%에 육박
  -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총규모에서 중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0.1%에서 2013년 46.7%, 2014년 상반기 60.4%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반면 채권시장에 대한 중국계 자금 순투자 규모는 2013년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7조 원을 기록했으나 2011년 3.7조원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
- 중국의 QDII 펀드 투자 대상 국가 중 한국의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은 2014년 1분기 5.8%로 37개 국가 중 3위를 차지
  - 중국 QDII 펀드 투자 대상 국가 중 홍콩의 비중은 2009년 73.3%에서 2014년 1분기 55.0%로 축소된 반면 한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5.8%로 확대

## 차이나머니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와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차이나머니의 국내 채권 순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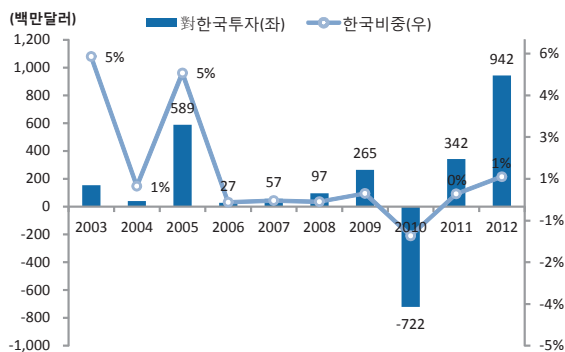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반면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증가하는 차이나머니를 유치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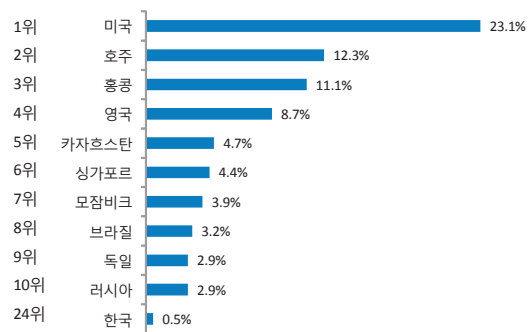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2010년 7.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2년 9.4억 달러 까지 확대되었지만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
- 중국기업의 해외 M&A 투자는 2012~2014년 현재 누적 기준 1,088.3억 달러인데, 이 중 한국의 비중은 0.5%로 미국 23.1%, 호주 12.3%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한편 지난 7월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여 12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중 간 투자·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한·중 FTA협상 연내 타결에 합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 RQFII 자격 부여 등에 합의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한국은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 4번째 역외 위안화 거래 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와 비중



주: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중국의 해외 M&A 투자비중 상위 10개국과 한국



주: Thomson one